박태원 교수의 40

불교로 보는 인생

사성제와 한국불교

해외유학, 박사 취득, 대학교수로 이어지는 소위 엘리트코스를 힘차게 걸어온 후배가 언젠가 이렇게 하소연했다.

"선배님, 아시다시피 대학 시절 때는 나도 불심을 가꾸는 일에 누구 못지 않게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법문도 열심히 좇아다니며 경청하고, 읽은 불서도 꽤 되며, 수련 대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불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 반문해 보면 곤혹스러워집니다. 단편적인 불교 지식이나 용어에는 제법 익숙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한 불교 기초가 의외로 빈약하다는 점에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후배의 고민은 그만의 것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와 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다. 선(禪) 불교의 저 기슭 설레도록 강렬한 깨달음의 기백, 대승불교의 현란한 사상적 깊이와 감동적인 보살의 길에 흠뻑 젖어 불문(佛門) 안을 거침없이 헤집어 가던 초발심들은, 어느 순간 실로 엉뚱한 회의에 맞닥뜨리곤 한다. 부처님 해탈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의외로 결핍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한다. 많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이것이 불교요 해탈로 가는 수행 길이다. 나는 지금 그 길을 이렇게 걷고 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불교 이해의 기본 얼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결코 둔하지 않은 그가, 불문에 든 지 20여 년이 지나 새삼 불교에 대한 기초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인가.

후배와의 대화에서 확인된 문제의 핵심은 그가 너무 후기불교의 언어에 경도되어 초기불교의 이해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해탈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친절한 지침인 사성제(四聖諦)에 관한 이해가 너무 약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한 해탈 수행법인 사성제를 그는 실제적인 수행 지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의 도리, 공의 이치에 관한 후기불교의 현란한 언어에서 사변적 만족을 얻는가 하면, '역시 참선을 해야 수행이지!' 하는 마음이 들 때면 화두 드는 흉내를 내곤 하였단다. 그러다가 문득 '이거 무언가 기초에 문제가 있다. 마치 공중에 발을 딛고 있는 느낌이다. 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아간다는 확신이 들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구나. 아직 수행의 실마리를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진 것이다.

오랜 역사의 한국불교는 역설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낯설다. 후기 대승불교를 통로로 하여 부처님과 만났기에 오히려 부처님 육성에는 생소하다. 사성제의 언어에 직접 의거하여 수행하면서 그 깊은 뜻을 음미하는 충분한 과정과 경험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해탈의 길 팔정도를 실제적인 수행 지침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내로라 하는 일본의 초기불교 전문학자들의 글을 읽다보면, 지식은 풍부한데 '마른 지혜'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성제를 음미하는 수행 경험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방불교 수행자들의 해설은 수행에서 우러나는 맛과 깊이가 돋보인다.

대승불교를 통로로 부처님과 만났기에 생소한 부처님 육성

사성제를 깊이 음미해야 한다. 팔정도를 가장 확실한 일상의 수행 길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후기 대승불교, 선종의 언어는 사성제, 팔정도의 오의(奧義)를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행히 남전(南傳)과 북전(北傳)이 만나 한국불교의 결핍을 보완하고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여건이 펼쳐지고 있다.

좋은 자료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고요한 소리' 의 책들을 권하고 싶다. 이미 15년 전부터 원대한 문제의식으로 〈남전대장경〉의 완전 번역 작업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고요한 소리' 가 펴내고 있는 소책자들, 사성제로 기초를 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불교유적 돌며 '불자의 삶' 재발심

참불자의 길 성지순례

올 들어 국내외 성지순례를 하는 사찰과 신행단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신문 등 각종 매스컴에서 주말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찰 순례 모집이다. 그만큼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21일까지는 보통 3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윤달이라 3사 순례를 하는 사찰들이 많다. 그러나 성지순례는 단순히 '답사간다' 거나 '쉬러 간다' 는 기념보다는 그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을 추스르고 새롭게 발심하는 마음으로 떠나야 할것이다. 즉 하나의 수행방편으로 삼자는 것이다.

4년간 매달 한번씩 사찰 순례를 하고 있는 김성동 씨(42)는 "바쁜 직장 생활로 평일 사찰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겸 사찰 순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사찰을 참배해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부처님 전에 재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달 참가하고 있다"고 만족해 했다.

생전에 많은 도량을 찾아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 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지 순례를 한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많다. 심산유곡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선지식의 감로 법문을 듣는 것도 성지순례에서 가질 수 있는 또하나의 즐거움이다.

신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자주 다니는 현각 스님(성불원 주지)은 "스님들이 인연 닿는 대로 수행처를 돌아다니며 만행을 하는 것처럼 사찰 순례도 재가불자들에겐 또하나의 수행"이라며 "사찰은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정진하는 신성한 도량인 만큼 사찰에서의 예절을 미리 숙지해 불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요즘 들어서는 성지 순례를 하며 오랜 세월동안 법등을 밝혀 온 사찰에 산재한 수많은 불교유적을 보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불보살상을 비롯해 탑·비·석물·공예·불화 등 우리 문화의 중심인 불교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배우기 위해서 사찰을 찾는다. 이들은 주로

업장소멸·공덕쌓기 관광보다 문화재공부 '성보지킴이' 역할도

전문 답사가나 안내자들이 함께가는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런 목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통사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성보문화재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둘러보는 관광형태의 순례에서 벗어나 문화재적인 가치와 의미를 꼼꼼히 새겨보고 돌 한 조각에서라도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을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과정에서 허술하게 관리되는 성보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그 주변을 정리하고 관할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성보 지킴이' 도 간혹 눈에 띈다. 이와같이 답사를 자신의 신심을 점검하고 불교 문화 유적을 아끼는 신행의 현장으로 삼는 답사모임도 많다. '한국석불선양회' '불교유적 답사회' '여래지답사회' '터사랑'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각암 주지 묘각스님이 성지순례단에게 선암사 경내를 설명하고 있다.

성지를 향해 집을 나섰다면 부처님 가르침의 참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한다. 아울러 성지순례를 단순히 여행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바쁜 일상속에서 잠시 여유를 찾고 흐트러진 신심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김주일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⑰ 진소경에 대한 답서(3)

붉은빛과 보라빛 누가 이름지었나?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지만, 아직 공부에 힘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를 마칠 곳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 점검한다면 도리어 멀어질 것입니다.

옛날 노화엄(老華嚴)은 말하기를, '불법(佛法)은 매일 매일 쓰는 곳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곳과 이야기하고 묻는 곳과 행위하는 곳에 있으니, 마음을 들어 생각을 움직이면 도리어 옳지 않다' 고 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곳을 딱 마주치면,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점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조사(祖師)께서 말했습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또 방거사도 말했습니다. '매일 쓰는 일이 따로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마주하여 잘 어울린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붉은빛과 보라빛을 누가 이름지었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 없구나. 신통(神通)과 묘용(妙用)이 물 길고 나무 나르는 것이다.' 또 선성(先聖)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의 드러남이 모두 꿈이다.'

회피할 수 없을 때에 마음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여여합니다. 또한 이해함이 날카롭다고도 하지 말고 무디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날카롭고 무딘 일에 조금도 상관치 말고, 고요하고 시끄러운 일에도 전혀 상관치 마십시오. 피할 수 없을 때에 딱 마주쳐서 홀연 의식(意識)의 포대를 벗겨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크게 웃을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털끝만큼이라도 공부를 통하여 증명하려고 한다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 어루만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피로할 뿐입니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 순간 마주치는 경계의 연속이다. 이렇게 매 순간 피할 수 없이 경계들에 마주칠 때 그 경계를 혹은 이렇게 이해하고 혹은 저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은 경계와 나 사이에 의도적인 마음이 개입되어 경계와 내가 마주하여 상대하는 것이다. 마주하여 상대하게 되면, 그 상대를 배척하든 끌어들이든 무시하든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의도적인 노력은 힘들고 피곤하며 두려운 일이다.

선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두려운 일이 없다. 선을 알게 되면, 매 순간 순간 피할 수 없이 마주치는 경계가 모두 나의 반대편에 나를 상대하여 서지를 않는다. 즉 선에서는 상대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배척하거나 끌어들이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피곤한 행위를 할 일이 없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여서 경계와 내가 둘인가 하나인가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점검하려는 노력이 생기는 것이 이미 대상과 나를 나누어 놓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둘인가 하나인가를 아무리 점검하려고 노력하여도 결국 둘일 뿐이다. 하나임이 분명하다면 점검이 필요 없으므로 점검하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피할 수 없이 경계를 마주치게 되면, 우선 힘써 경계를 상대하여 경계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경계와 다른 나 자신 혹은 경계 위에서 확인되는 나 자신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말라. 어떤 경계가 나타나든 상대화시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홀연 벗어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만약 상(相)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대로가 여여(如如)하여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 하고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대화시키는 것은 모두 상을 취하는 것이다. 상을 취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일거수 일투족과 한 생각 한 느낌이 모두 여여한 법(法)일 따름이다. 있는 그대로가 여여한 법인데 다시 공부를 하여 법을 증명하려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망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일 따름이다.

2545 禪의 향연 2001
대둔사 여름 참선 수련회 모집 안내

번뇌를 벗어남은 보통일이 아니니 고삐끝을 꼭 잡고 한 바탕 일을 치루라
매서운 추위가 뼈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떻게 매화 향기 코를 찌르랴. — 황벽선사 —

일 정

구 분	찻수	기 간	모집인원	수련비용	비 고
일반부	1차	7월 9일~7월13일(4박5일)	35명	70,000원	19세~55세
	2차	7월16일~7월20일(4박5일)	35명	70,000원	19세~55세
	3차	8월 8일~8월14일(6박7일)	35명	90,000원	19~55세(유경험자)
청소년	1차	8월 1일~ 월 4일(3박4일)	100명	30,000원	중, 고등부 학생
어린이 숲속마을	1차	7월24일~7월26일(2박3일)	150명	20,000원	초등학생
	2차	7월28일~7월30일(2박3일)	150명	20,000원	초등학생
자원봉사자 — 매 찻수마다 5명(여자에 한함. 수련비 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2,3차 수련회는 참선 위주로 진행합니다.

모 집 요 강 (1~6, 일반인 기준)

1. A4용지에 우측 양식대로 본인이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빠른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2.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3.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마감일은 6월29일(금) 우체국 소인까지입니다.
5. 7월5일(목)까지 동참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6. 수련기간중 조석108배, 참선 등을 수행하므로 심장병, 관절염, 디스크등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7. 보낼곳 : (우536-811)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둔사(대흥사)수련원
8. 문의처 : 수련원 ☎(061)535-5775
팩 스 (061)535-5357
홈페이지 daedunsa.com
온라인 : 예금주 — 대흥사
우 체 국 502716-01-000640

※청소년과 어린이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화로 신청합니다.
※교통편 : 1)출발지(고속버스터미널) →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하차)
2)광주 고속버스터미널 → 해남 터미널(하차) - 광주 터미널에서 20분 간격(2시간 소요)
3) 해남 터미널 → 대흥사행 종점(하차) - 해남터미널에서 30분 간격 (약 25분 소요)

신청서 양식
대둔사 참선수련회 참가신청서
이름 한글 한자 법명 성별 남·여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팩스 · email
직업 (구체적으로) 종교
수련회 경험 유무
복( ) 有( ) 후 년도 제
희망차수 제 차
(월 일부터 일 까지)
참가소견(자세하게)
년 월 일
신 청 인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 둔 사 (대흥사) 주지 보선 수련원장 법인 합장

"『강청화 대선사님』 초청합동 천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우리 죽림정사에서는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이시대 위대한 스승이시며 대선사로 추앙받는 원로위원이신 강청화 큰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성망조상 영가와 유주무주 고혼영가 합동 천도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께서는 이 청정무변한 법석에 동참하시어 그 공덕으로 다생 업장소멸하여 지혜와 복덕 구족되여 성불의 대도를 성취하시기를 합장기원합니다.

❖ 천도법화일시 : 불기 2545년 6월 16일 1시 (음) 윤 4월 25일 1시
❖ 장 소 : 죽림정사 법당
❖ 동참기도비 : 3만원(영가 2분) 추가 1위당 만원

※ 영가 천도에 동참하실 불자님께서는 14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혼잡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전화 접수 가능)

대한불교 조계종 죽 림 정 사
우 422-220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42-2.
전화 : 032)679-3490, 684-5516